대한 양계협회 소식

'96 전국 부화인대회 개최
육용병아리 생산감축에 합의

본회 및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가 주최한 '96전국 종계부화인 대회가 지난 9일 온양그랜드파크 호텔에서 70여명의 종계부화 관련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WTO 체제 출범 이후 국제동향과 종계부화인의 역할'을 주제로 허신행(한국소비자보호원장) 박사가, '위생방역 시책방향'을 주제로 최홍렬(농림부 가축위생과) 계장이 각각 강연을 가졌으며 육계불황타개를 위한 대책협의에서는 육용병아리 생산감축에 적극 협조키로 의견이 모아졌고 홍보비를 적립하여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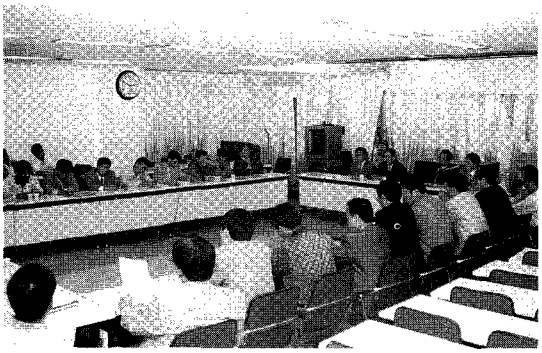
일본양계업자 본회 방문
국내양계업 현황 파악차 내한

청명양계 시마다씨를 비롯한 일본양계업자 20여명이 지난 14일 본회를 방문하여 한국양계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13일 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양계산업 시찰단은 이날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오봉국(본회 고문) 박사가 발표한 '한국양계산업 현황'과 장경만(안성산업대) 교수가 발표한 '한국양계산업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국내양계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다.

육계 불황타개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
닭고기 우수성홍보 필요

본회는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병아리의 과잉생산, 입식열기 고조 등으로 육계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옴에 따라 이에대한 자구책을 마련키 위해 지난 2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육계, 종계부화, 계열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육계 불황타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현안문제를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들면서 입추열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병아리 가격의 하락과 생산조절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육계의 비축물량이 1,000만수를 상회하고 있어 상당기간 육계값 회복이 어렵다고 분석하고 닭고기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종계노계처리, 병아리 감축, 비축시설 확보, 육계업자들의 입추자제 등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업계 전체가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갈것을 강조했다.

병아리 폐기처분
10월말까지 주당 16만수씩 실시

본회를 비롯해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주)하림은 지난 10일 육계경기회복을 위해 하림 렌더링 처리장에서 8만수 병아리를 1차적으로 폐기처분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육계업계가 장기 불황에 돌입하면서 지난 8월 19일 부터 주당 40만수씩 병

아리를 (주)하림에 공급하고 있는 15개 부화장들과 (주)하림이 공급물량중 40%(16만수)를 폐기처분하기로 합의하면서 취해진 조치이다. 이 계획은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실시되며 경기회복이 안될경우 차후 부화란 폐기처분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달걀·닭고기 요리강습 및 시식회 개최
소년소녀가장에게 닭고기 전달

본회는 지난 31일 월계사회복지관에서 소년소녀가장 대표들과 주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달걀·닭고기·요리강습 및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소년소녀가장 100명에게 닭고기 및 계란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2부 행사에서는 박경신(식생활연구회) 원장이 강사로 나와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달걀요리

3종, 닭고기 요리 6종을 강습하였고, 3부 시식회에서는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달걀·닭고기 요리를 시식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국 난가조절위원회 개최
난가현실화 해결책 모색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는 최근 난가현실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장가격이 고시가격 보다 낮게 거래되면서 계란유통의 혼란을 가져옴에 따라 지난 16일 전국 난가조절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현안문제를 토의 하였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서울,경기지역과 지방의 난가 고시가 일관적이지 않고 난가하락시 내리기경쟁 등으로 오히려 상인들만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난가조절위원들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난가변동시 전국적으로 유통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동일한 비율로 난가를 조절해나가며, 난가현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마진폭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해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노계도태 절실

10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추석직후부터 계란이 체화되기 시작하여 DC폭이 15원 이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난가하락의 원인은 고난가가 형성되면서 소비가 둔화되었음은 물론 노계도태의 연장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노계도태를 유도하기 위해 저난가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DC폭을 줄이고 난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의 난가조절위원들이 자주 만남을 갖고 정보교환을 통해 유통의 흐름을 파악, 난가고시를 신중히 하여 문제점을 풀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살모넬라 보도에 대한 대응책 강구

10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닭고기의 살모넬라 검

출문제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육계가격이 600월 이하로 거래되어 육계농가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에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처방안으로는 육계분과위원들을 주축으로 빠른 시일내에 농림수산부에 자료유출 문제의 책임을 물어 해명요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갖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 외에 냉동비축되어 있는 닭고기의 폐기처분문제, 닭고기의 최종소비자 가격 인하 등의 노력으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침체되어있는 육계업을 회복시켜나가자는데 합의하였다.

제4차 검정위원회 개최
제47회 육용계검정 최종성적 발표

제4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검정위원회 회의록과 업무추진 사항 보고에 이어 제47회 육용계검정 최종성적 검토가 있었으며 29, 30회 산란계검정 중간성적, 48회 육용계검정성적 검토가 있었다.

본회 논산육계분회
정기월례회의 개최

본회 논산육계분회(분회장 이종철)는 지난 9월 11일 선운사(전북 고창 소재)에서 분회 활성화를 꾀하기 정기월례회의 및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7회 전국 채란인대회 개최
오는 5일 수안보에서

제7회 전국 채란인대회가 본회 및 전국 계우회연합회 주최로 오는 5일 수안보온천 관광단지내 "한국콘도"에서 채란인 및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